

31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투표는 주요 쟁점에 대해 견해를 표현하고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행위로,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그래서 정치학자와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즉 투표 참여 태도나 동기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투표 결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 밝힌다**. 투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으로 당정체성 모델, 사회학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 등이 있다.

당정체성 모델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애착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정당에 대한 애착심은 유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어떤 정당과 내면적으로 연결된 귀속 의식, 즉 '특정 정당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속감은 부모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형성되며,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정치적 태도로 간주된다.

사회학적 모델은 유권자의 사회적 배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은 계급, 인종, 종교, 지역 등이 정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던 서유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과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유권자들은 투표 행위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보인다고 강조한다.

합리적 선택 모델은 유권자 개인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투표 행위를 설명한다. 이 모델에서는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투표 행위를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한다고 본다.

그런데 당정체성 모델은 유권자가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점을, 사회학적 모델은 유권자가 사회적 배경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에 의해 투표하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합리적 선택 모델은 유권자도 결국 사회적 배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투표는 개인, 사회, 정치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원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합리적 선택 모델에서는 투표 행위가 개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② 사회학적 모델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 ③ 당정체성 모델에서 말하는 '소속감'은 유권자가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었을 때 갖게 된다.
- ④ 투표 행위는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정치 참여 방식이다.
- ⑤ 투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과 투표 결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2 위 글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한 후,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② 화제와 관련된 구체적 현상을 분석한 후, 기존 이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③ 화제와 관련된 상반된 이론을 단계적으로 소개한 후, 그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가설을 제시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 ⑤ 화제와 관련된 이론들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후, 각 이론들의 상호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3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가) 일본의 한 선거에서 ○○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유권자가 매니페스토 운동(유권자들의 참 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이 후보가 당선되었다.

(나) 영국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에 따라 정당을 정하고, 이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자 계급은 노동당에, 중산 계급은 보수당에 투표를 하였다.

- | | |
|-------------|-----------|
| (가) | (나) |
| ① 당정체성 모델 | 사회학적 모델 |
| ② 사회학적 모델 | 합리적 선택 모델 |
| ③ 사회학적 모델 | 당정체성 모델 |
| ④ 합리적 선택 모델 | 당정체성 모델 |
| ⑤ 합리적 선택 모델 | 사회학적 모델 |

4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그는 돈과 지위를 지나치게 **밝힌다**.
- ② 그녀는 경찰에게 이름과 신분을 **밝혔다**.
- ③ 동생이 불을 **밝혔는지** 장지문이 환해졌다.
- ④ 학계에서는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애썼다.
- ⑤ 할머니를 간호하느라 가족 모두 뜬눈으로 밤을 **밝혔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현실주의는 20세기의 중요한 예술 사조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미술뿐 아니라 문학, 연극, 영화 나아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합리적인 이성의 세계를 거부하고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탐험하고자 애썼다. 그래서 이들은 꿈에 매혹되었고, 아이들의 동심과 정신이상자들의 광기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초현실주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처음 등장한 초현실주의 예술가 집단은 '자동기술법'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 기법은 떠오르는 생각을 의식의 통제 없이 가능한 빨리 받아쓰거나 그리는 것이다. 후양 미로와 앙드레 마송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자동기술법을 통해 의식에 전혀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이미지의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다. 자동기술법은 의식의 작용이 멈춘 상태에서 붓 가는 대로 그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에서 실제의 사물이나 사람 혹은 풍경들과의 형태적인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바로 그림으로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이들 중에 ㉠ 예술가가 창조 행위의 주체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의식의 단순한 매개자가 되어 버린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되었다.

그 후에 등장한 초현실주의 예술가 집단은 경이롭고 낯선 이미지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일상적인 사물들을 전혀 엉뚱한 곳에 배치하는 것을 좋아했다. 시인 로트레아몽은 자신의 시구 중에서 '수술대 위에서 재봉틀과 우산의 우연한 만남'을 예로 들며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낯설고 놀라운 이미지들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의 감각에 강하게 작용했다. 마그리트, 달리, 델보 등은 '데페이즈망'을 통해 사물과 풍경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이것들을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처럼 낯설게 표현하였다. '데페이즈망'은 어떤 물건을 본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어 뜻하지 않은 곳에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하는 기법으로, 이 집단에 속한 예술가들의 중요한 표현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의식의 간섭 없이 무의식을 표현해야 한다는 초현실주의의 원칙에서는 벗어난 것이었지만, 의식 너머의 세계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노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 밖에도 많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오브제, 콜라주, 프로타주 등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실험하였다. 하지만 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결국 초현실주의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거의 와해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시도했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이후 현대 예술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동기술법은 미국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져 중요한 자취를 남겼으며, 데페이즈망 역시 현대 조형 예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5 위 글을 쓰기 위해 글쓴이가 세운 계획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초현실주의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한다.
- ②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두 흐름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 ③ 초현실주의의 두 흐름 속에 나타난 핵심 기법들을 중심 내용으로 삼는다.
- ④ 소개하려는 두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누구인지 자료를 수집한다.
- ⑤ 초현실주의 예술의 한계와 예술사적 의의를 함께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6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와 [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오늘은 초현실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p>[A]</p>  <p style="text-align: center;">앙드레 마송, <자동태상></p>	<p>[A]는 자동기술법으로 그려져서, 처음 볼 때는 뒤엉킨 선들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 다리, 손, 눈, 얼굴 등이 뒤섞여 자유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p>
<p>[B]</p>  <p style="text-align: center;">르네 마그리트, <불박힌 시간></p>	<p>[B]는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벽난로, 시계, 기차는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입니다. 그러나 이 사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도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p>

- ① [A]를 처음 본다면, 뒤엉킨 선들에서 인체 형태와의 연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겠군.
- ② [B]에 나타난 당혹스러운 이미지는 의식의 개입 없이 그려진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겠군.
- ③ [A]의 제목은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그리는 자동기술법의 특성과 관련이 있겠군.
- ④ [B]는 일상적인 사물들을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꿈속의 광경처럼 낯설고 놀라운 느낌을 갖게 하였군.
- ⑤ [A]와 [B]에서 사용된 표현 기법은 이후의 많은 현대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겠군.

7 ㉠이 '자동기술법'에 회의를 갖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 ② 의식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였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 ③ 예술가를 무의식을 전달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 ④ 무의식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⑤ 초현실주의 예술가를 당대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방’은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또한 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 당 4kcal의 열량을 내는 데 비해 지방은 9kcal의 열량을 낸다. ‘체지방’은 섭취한 영양분 중 쓰고 남은 영양분을 지방의 형태로 몸 안에 축적해 놓은 것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체지방은 지방 조직을 ㉠ 이루는 지방세포에 축적되며, 피부 밑에 위치하는 피하지방과 내장 기관 주위에 위치하는 내장 지방으로 나뉜다. 이 체지방은 내장 보호와 체온 조절 기능을 할 뿐 아니라 필요시 분해되어 에너지를 만들기도 한다.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인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조절해야 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지수가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인 ‘체지방률’이다. 체지방률은 남성의 경우 15~20%, 여성의 경우 20~25%를 표준으로 삼고, 남성은 25% 이상, 여성은 3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한다.

비만의 판정과 관련하여 흔히 쓰이는 ‘체질량지수(BMI)’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여러 체격지수 중에서 체지방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²)으로 나누어 구하는데, 18.5~22.9이면 정상 체중,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경도 비만, 3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판정한다. 그러나 운동선수처럼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체지방률이 적어도 상대적으로 BMI가 높을 수 있다. 이처럼 BMI는 체지방률에 대한 추정만 가능할 뿐 체지방률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면 BMI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지방 측정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 ‘피부두껍질법’이 있다. 이 방법은 살을 캘리퍼스*로 집어서 피하지방의 두께를 잰 후 통계 공식에 넣어 체지방을 산출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측정 부위나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내장지방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수중체중법’은 신체를 물에 완전히 잠근 후 수중 체중을 측정하고 물 밖 체중과 비교하여 체지방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체중은 체지방과 체지방*의 합이다. 체지방은 밀도가 0.9g/cm³로 물에 뜨고, 체지방은 밀도가 1.1g/cm³로 물보다 높아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체지방률이 많을수록 수중 체중이 줄어들어 물 밖 체중과의 차이가 커진다. 이 차이를 이용하여 체지방률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방법은 체지방률을 구하는 표준 방법으로 쓰일 정도로 이론적으로는 정확성이 높다. 하지만 신체 부위별 체지방의 구성이나 비율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체내 공기량에 따라 측정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연구 목적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체지방 측정기를 이용하여 체지방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BIA)’이 활용된다. 이 방법은 일정한 신체 부위에 접촉된 전극을 통해 체내에 미약한 전류를 흘려보내 전기저항을 알아봄으로써 체지방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전류가 흘러갈 때 이를 방해하는 힘을 저항 또는 전기저항이라고 하는데, 인체 내의 수분은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기저항이 매우 작다. 근육세포는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이 많은 곳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작게 나타난다. 반면 지방세포는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아 지방이 많은 곳에서는 전

기저항이 크게 나타난다. 전류가 신체를 통과해서 나온 값이 처음 흘려보낸 값에서 얼마나 손실되었는지 확인하면 신체의 전기저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체지방률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단일 주파수의 전류로는 세포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다주파수 측정 방식을 사용한다. 10kHz 이하의 저주파 전류는 세포막을 넘어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세포 외 공간에서만 흐를 수 있다. 세포 외 공간은 수분이 대부분이어서 전기저항이 매우 작다. 하지만 5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는 세포 외 공간과 세포 내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흐른다. 다양한 주파수의 전류를 보내면 세포의 수나 세포 내 수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의 구성 성분 비율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전기저항 수치는 체내 수분의 양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음료 섭취나 운동 등으로 체내 수분의 양에 변화가 생기면 전기저항 수치가 변하여 체지방률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지방 측정기를 사용할 때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조건에서 측정해야 한다.

- * 캘리퍼스: 자로 재기 힘든 물체의 두께, 지름 따위를 재는 기구.
- * 체지방: 근육과 뼈, 수분 등 지방 이외의 신체 구성성분.

8.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체지방을 정의하는 상반된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 ② 체지방이 수행하는 역할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 ③ 체지방을 조절하는 방법들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체지방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과 그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⑤ 체지방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다양한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9.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해 열량이 높다.
- ② 체지방률은 판정 기준치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
- ③ 체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다.
- ④ 비만은 인체에 체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 ⑤ 체중은 체지방과 체지방의 전기저항 차이를 통해 산출한다.

10. ㉡와 ㉢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조건에서 측정해야 한다.
- ② 내장지방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③ 측정의 정확성이 높아 표준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 ④ 연구 목적 외에도 실제 측정 방법으로 널리 활용된다.
- ⑤ 측정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11.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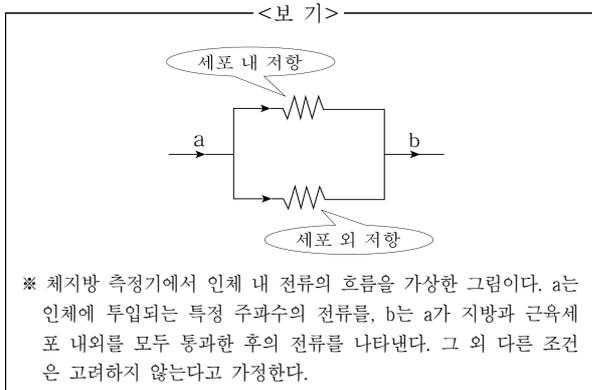
<보 기>

아래의 측정값은 체중이 60kg인 A, B 두 남성에게서 얻은 것이다.

측정 대상	BMI	체지방량(kg)
A	24.2	16.2
B	20.4	13.2

- ① 신장이 더 작은 사람은 A이다.
- ② 체지방량이 더 많은 사람은 B이다.
- ③ 수중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은 A이다.
- ④ BMI만 볼 때 정상 체중인 사람은 B이다.
- ⑤ 체지방률로만 볼 때 비만인 사람은 A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50kHz 이상의 주파수를 가질 것이다.
- ② 지방보다 근육에서 '세포 내 저항'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③ a만으로는 세포 내외의 수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
- ④ a가 흐를 때 '세포 내 저항'이 '세포 외 저항'보다 작게 나타날 것이다.
- ⑤ 땀을 많이 흘린 후 다시 측정하면 그 전보다 b의 값이 감소할 것이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도덕적이고 규범적이며 사람다운 삶을 강조하는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은 우주의 근원과 질서, 그리고 인간의 심성과 질서를 '이(理)'와 '기(氣)' 두 가치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성리학을 '이기론' 또는 '이기 철학'이라고도 부른다.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는 만물에 ㉠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를 현실에 드러내 주는 방식과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는 언제나 한결같지만 '기'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므로, 우주 만물의 원리는 그대로지만 형체는 다양하다. 이러한 '이'와 '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기'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서경덕을 들 수 있다. 그는 '기'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서경덕에 의하면, 태초에 '기'가 음기와 양기가 되고, 음기와 양기가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면서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불과 물 등의 만물이 만들어졌다. '기'는 어떤 외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여 만물을 생성하고 변하게 한다. 하지만 '이'는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 작용하지 않는다. 즉, '이'와 '기'는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 한다. 기일원론의 바탕에는, 현실 세계의 모습은 '기'의 움직임에 의한 것이므로, '기'가 다시 움직이면 현실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고가 깔려 있다.

'이'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는 이황이다. 이황은 서경덕의 논의를 단호하게 ㉢ 비판하며 '이'와 '기'는 하나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이며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이'는 하늘의 뜻, 즉 천도(天道)이며, 만물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나는 본성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면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회복하고, 인간 사회는 천도에 맞는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한다고 보았다. 현실 사회가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사악한 마음을 따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사악한 마음은 인간의 생체적 욕구, 욕망 등인 '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기'가 하나일 수는 없으며, 둘은 철저히 ㉣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황의 주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이이원론(理氣二元論)'이라 한다. 이황은 '이'가 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발동한다고 보았다. '이'가 발동하면 그에 따라 '기'도 작용하여 인간이나 사회는 도덕적인 모습이 되지만, '이'가 발동하지 않고 '기'만 작용하면 인간이나 사회는 비도덕적 모습이 될 수 있다. 이황은 인간이 '이'를 깨우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현실의 문제 상황은 학문과 수양을 통해 '이'를 회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이는 서경덕과 이황의 논의가 양극단을 달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와 '기'의 관계를 새롭게 ㉤ 규정하였다. 이이는 '이'를 모든 사물의 근원적 원리로, '기'를 그 원리를 담는 그릇으로 보았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둥글고 모난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이 모나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물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처럼 '기'는 현실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물이 그릇에 담겨 있지만 물과 그릇이 다른 존재이듯이, '이'와 '기'도 한 몸처럼 붙어

있지만 '이'와 '기'로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는 현실에 아무 작용을 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 현실의 모습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는 '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회복하기보다는 '기'로 나타난 현실의 모습 자체를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 이이의 주장이다. 이이가 조선 사회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론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 발동(發動): 일어나 움직임.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적 용어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 ② 철학적 용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문답의 형식을 통해 철학적 용어의 개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실을 해석하는 철학적 용어가 등장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철학적 용어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나열하고 있다.

14. 윗글을 참고할 때, 아래의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경덕	이황
'이'와 '기'란 무엇인가?	'이'란 만물에 내재하는 원리이고, '기'란 '이'를 현실에 드러내 주는 방식과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이다.	
'이'와 '기'의 성격은 어떠한가?	ㄱ	ㄴ

- ① [ㄱ: '이'와 '기'는 하나이다.
ㄴ: '이'와 '기'는 철저히 구분된다.
- ② [ㄱ: '이'는 '기'와 별도로 작용한다.
ㄴ: '이'는 '기'와 동시에 작용한다.
- ③ [ㄱ: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이'이다.
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기'이다.
- ④ [ㄱ: '기'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ㄴ: '이'는 '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 ⑤ [ㄱ: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기'라고 본다.
ㄴ: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이'라고 본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이'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양반이 되어야 군포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밤낮으로 양반이 되는 길을 모색한다. 고을 호적부에 기록되면 양반이 되고, 거짓 족보를 만들면 양반이 되고,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하면 양반이 되고, 두건을 쓰고 과거 시험장에 드나들면 양반이 된다. 몰래 불어나고, 암암리에 늘어나고, 해마다 증가하고, 달마다 불어나 장차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양반이 되고 말 것이다.

- 정약용, 「신포의(身布議)」 -

- ① 양반이 되려는 백성들의 문제는 본성을 잃어버려서 생긴 문제이므로, 학문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 ② 편법으로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백성을 이렇게 만든 것이므로,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③ 백성들의 행동은 현실에 내재하는 원리가 잘못되어 나타난 현상이므로, 현실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 ④ 양반이 되려는 백성들의 모습은 음양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것이므로,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음양의 또 다른 작용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⑤ 백성들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군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러한 욕구를 따르지 않도록 천도에 맞는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빠른정답.

3	1	5	4	1
2	3	4	5	2
3	4	5	1	2

[1 ~ 4] (사회)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

이 글은 유권자의 투표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당정체성 모델, 사회학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 정보를 파악한다.

당정체성 모델에서 말한 ‘소속감’은 부모의 영향으로 가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유권자가 어떤 정당과 내면적으로 연결된 귀속 의식을 말한다. 여기서 내면적이란 어떤 공식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유권자의 정당 가입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먼저 투표 행위와 관련된 당정체성 모델, 사회학적 모델, 합리적 선택 모델 등의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후에 마지막 단락에서 각 모델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설명하여 그 이론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글에 제시된 이론에 적용한다.

<보기>의 (가)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자, 유권자가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여 그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결국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합리적 선택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나)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계급에 따라 투표를 했다는 내용으로, 사회학적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다.

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의 ‘밝히다’는 투표 성향과 투표 결과의 상관관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린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의 ‘밝히다’도 사태의 진상을 판단하여 드러내 알린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 ~ 7] (예술) 진중권, ‘초현실주의’

위 글은 ‘자동기술법’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예술가들과 ‘데페이즈망’을 통해 이미지를 낯설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두 예술가 집단을 중심으로 20세기의 중요한 예술 사조 가운데 하나인 초현실주의의 중요한 두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글을 읽고 글쓴이가 세운 글쓰기 계획을 추론한다.

위 글의 서두에는 초현실주의가 영향을 미친 분야 및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이 중요하게 탐구했던 것들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초현실주의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한다.

‘데페이즈망’ 기법이 사용된 [B]의 경우는 익숙한 사물을 의식적으로 낯설게 배치한 것이므로, 의식의 개입 없이 그려졌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의식의 개입 없이 그려진 것은 ‘자동기술법’이 사용된 [A]이다.

7.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여 이유를 추론한다.

‘자동기술법’은 예술가의 의식을 배제하고 무의식을 표현하려고 했던 기법이었기 때문에, 예술가들을 수동적인 무의식의 전달자로 전락시켰다고 볼 수 있다.

[8~12] (기술) 「체지방이란 무엇인가」(계구성)

이 글은 체지방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 가지 체지방 측정법을 소개하고 있다. 인체에 체지방이 많이 축적되면 비만이 될 수 있으므로 체지방 조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체지방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체지방 측정법에는 ‘피부두겹법’, ‘수중체중법’,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체지방 측정기에 활용되는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은 근육과 지방의 전기저항 차이를 이용하여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8.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오답풀이] ① 체지방에 대한 정의는 드러나지만, 정의에 대한 상반된 관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② 체지방이 수행하는 역할은 드러나지만, 그것을 단계별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③ 체지방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조절 방법이나 그 방법의 장단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⑤ 체지방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그것을 비판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 따르면 체중은 체지방과 체지방의 합으로, 체지방과 체지방의 전기저항 차이를 통해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③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④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피부두겹법’은 피하지방 두께를 재어 체지방을 산출하므로 내장지방을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수중체중법’은 인체의 전체적인 체지방량은 얻을 수 있지만 신체 부위별 체지방의 구성이나 비율을 구할 수 없기에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을 구분해서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둘 사이의 공통점은 내장지방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을 통해 체지방을 측정

할 때 유의할 점이다.

- ③ '수중체중법'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 ④ '피부두겹법'이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수중체중법'은 연구 목적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⑤ '피부두겹법'은 측정자의 숙련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수중체중법'은 정확성이 높지만 측정자의 숙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

1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체지방량이 많을수록 수중 체중은 줄어든다.(5문단) A와 B는 체중이 같으므로 체지방량이 더 많은 A는 B에 비해 수중 체중이 더 많이 줄게 된다. 그러므로 수중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사람은 A가 아니라 B이다.

[오답풀이] ①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²)으로 나누어 구한다.(3문단) 체중이 같다면 신장이 더 작은 사람이 BMI가 높다. 그러므로 B보다 BMI가 더 높은 A가 신장이 더 작다.

- ② 체중은 체지방과 제지방의 합이다.(5문단) 그러므로 A보다 체지방량이 더 적은 B가 제지방량은 더 많다.
- ④ BMI는 18.5~22.9를 정상 체중으로 판정하므로(3문단) BMI가 20.4인 B는 정상 체중이다.
- ⑤ 체지방률은 체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2문단) 두 사람의 체지방률을 구해 보면 A는 27%(16.2/60×100), B는 22%(13.2/60×100)이다.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 25%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므로 비만인 사람은 A이다.

12.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전류가 흐를 때 세포 외 공간은 수분이 대부분이어서 전기저항이 매우 작다. 전류가 세포 내 공간을 흐를 때 근육세포에서는 전기저항이 비교적 작고, 지방세포에서는 전기저항이 크다. 그러므로 지방세포이든 근육세포이든 '세포 내 저항'이 '세포 외 저항'보다 크다.

[오답풀이] ① a는 세포 내외를 모두 통과하므로 50kHz 이상의 고주파 전류이다.

- ② 전기저항이 지방세포에서는 크고 근육세포에서는 작기 때문에 지방보다 근육에서 '세포 내 저항'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 ③ 세포 내외의 수분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고주파 전류인 a를 비롯한 다양한 주파수의 전류를 보낼 필요가 있다.
- ⑤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의 양이 줄어 이전보다 전기저항이 커진다. 그러므로 세포 내외를 모두 통과한 후의 전류의 값이 감소하게 된다.

[13~15] (인문) 「한국철학 콘서트」(재구성)

이 글은 성리학에서 인간과 세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와 '기'에 대한 서경덕, 이황, 이이의 입장을 소개하는 글이다. 서경덕은 '이'와 '기'가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는 입장이고, 이황은 '이'와 '기'가 각각 존재하면서 작용하므로 둘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이는 '이'와 '기'가

각각 존재하지만 둘은 하나로 붙어 있다는 입장이다.

13. [출제의도]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제시문은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 사람의 철학적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기'가 하나라고 본 서경덕의 관점, '이'와 '기'는 하나가 아니며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이황의 관점, '이'와 '기'는 각각 존재하지만 하나로 붙어 있다는 이이의 관점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철학적 용어 '이', '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그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철학적 용어 '이', '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철학적 용어 '이', '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④ 현실을 해석하는 철학적 용어 '이', '기'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의 등장 배경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4.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서경덕은 '이'와 '기'는 하나이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고 하였다(2문단). 이황은 '이'와 '기'는 하나일 수 없으며 이 둘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3문단).

[오답풀이] ② ¬-서경덕은 '이'가 '기' 속에 있으면서 '기'가 작용하는 원리로 존재할 뿐 독립적으로 드러나거나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문단). ¬-이황은 '이'의 발동에 따라 '기'가 작용하거나, '이'가 발동하지 않고 '기'만 작용한다고 보았다(3문단).

- ③ ¬-서경덕은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기'뿐이라고 보았다(2문단).
- ④ ¬-서경덕은 '이'가 '기' 속에 있다고 보았으므로(2문단) '기'가 '이' 속에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이황은 생체적 욕구와 욕망을 '기'라고 보았다(3문단).

1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는 현실의 모습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것은 '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가 잘못된 것이므로 '기'로 나타난 현실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문단). <보기>는 군포를 면제받기 위해 양반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언급하며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기'로 드러난 현실, 즉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현실의 모습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학문과 수양을 통해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이황의 주장이다(3문단).

- ③ 현실에 내재하는 원리는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성리학에서 '이'는 만물의 근원이므로(1문단),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리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이가 할 수는 없다.
- ④ 음양의 작용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서경덕의 입장에 가깝다(2문단).
- ⑤ 천도는 '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천도에 맞는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황의 입장에 가깝다(3문단).